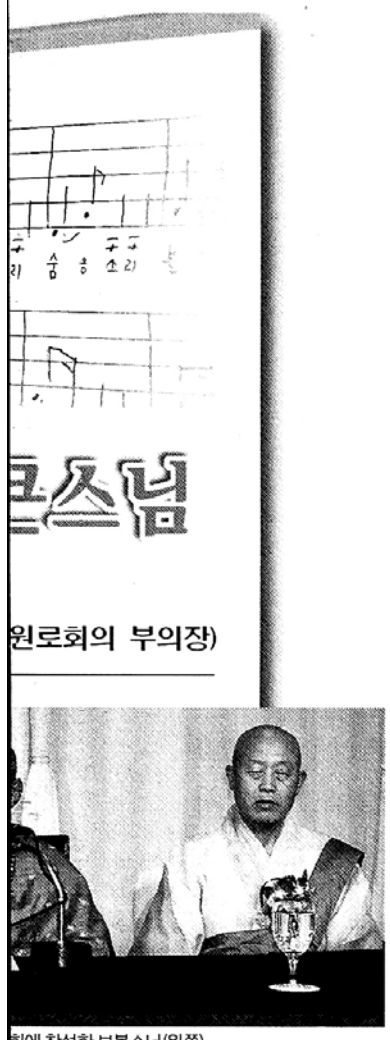
처님 나투십니다"



코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포교를 화두삼아 일심으로 정진해온 스님은 92년 뉴욕에 전등사를 창건했다.

회에 참석한 보봉스님(왼쪽).

배포했으며, 서울시민회관에서 불교음악회를 최하여 내외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스님은 한국불교 불모지 뉴욕에 전등사를 세 해외포교에도 주력했다.

스님은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불자들을 교화하 , 원로회의 창립에 헌신하는 등 종단발전을 위 노력해은 공로가 인정돼 태고종도들로 부터 은 추앙을 받고 있다.

스님은 1972년 종로 대법사 주지, 77년 범혜사 지, 78년 뉴욕 전등사 조실, 91년 한국불교포교 협회 부회장, 97년 태고종 서울 중서부종무원 , 98년 대륜불교연구원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고종 원로회의 부의장이다.

현대적 불교음악 포교 큰힘

틀 날때마다 일념으로 작곡

장…뉴욕에 전등사 창건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시 불자들이 사용할 수 있 록 작곡중이라고 했다.

한참을 설명하시던 스님은 칠판에 '범음응천불(梵 應天佛)' 이라는 글귀를 적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을 찬탄하는 범음이 지극하면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 낸다' 는 설명이었다.

보봉 스님은 오직 포교일념으로 수행해 오신 스님 이다. 92년에는 미국 뉴욕에 한국 사찰로는 처음으로 전등사를 세우고 20여년간 해외포교에도 주력했다.

"처음에는 가정집 차고를 법당으로 해서 전등사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미주 조선 일보에 광고를 하니 교민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었어요. 부처님 말씀이 그리운 사람들이었 던 게지요. 자동차가 법당 옆 주택가에 즐비 하니 주민들이 신고하여 경찰서까지 갔으니 까요. 다음날 인근 햄버거 집에 갔어요. 주인 을 불러놓고 '매주 햄버거를 구입해 줄 것이 니 너희 주차장을 사용하자. 우리 서로 돕고 살자' 고 하니 미국인 주인이 'YES' 하더니 어 느 순간 독실한 불자가 되버리더라고요. 이제 전등사는 500여명이 들어가는 법당을 갖춘 뉴욕한복판의 큰 사찰이 됐지요. 한국불교는 체(體)는 갖췄어도 용(用)은 갖추지 못했어 요. 체와 용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라 도 소홀하면 안돼요. 한국불교는 이 부분부터 다시 점검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스님의 체와 용의 사상을 들으니 불현듯 화엄종을 창종한 법장 스님과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던 측천무후(則天武后, 624년~705년)의 대화가 생각났다. 법장스님은 궁의 금사자상을 가르키며 측천무후에게 "금(體)이란 본래 자성(自性)이 없으므로 기술자가 교묘하게 가공하면 이것을 연으로 하여 금사자(用)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라고 불교교리를 설명했다. 결국 법장스님은 금이 본체이고 금사자의 형상은 현상이므로 금이 없으면 금사자도 없으니 금은 곧 금사자 안에 있다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체란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일체 차별상의 근본이 되는 절대평등의 본체로서 일체 만물의 불변상주하는 본 모양을 가리키며, 용이란 체를 근거로 하여 인연에 따라 일체 차별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체와 용은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화엄에서 말하는 체가 곧 용이고 용이 곧 체라는 이사무애(理事無碍) 법계관이다.

스님은 이번 '수해' 에 대해서도 체와 용으로 설명하셨다.

"수해현장을 보니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라와요.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체와 용을 갖추지 못했어요.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갈 날만 남았다고 하지만 용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학교로 예를 들면 학습시설과 교실 다 갖췄어도 자질 있는 교사를 갖추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스님은 며칠 전 수해현장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요즘계속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수해는 인재라며 인간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었다.

"한 보살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강원도 동해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다가 10대나 매몰됐는데 빨리 가는 차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해요. 보살님 말씀은 그렇게 되려고 해도 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과연 불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산 밑으로 차가 지나가지 않으면 산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우주의 흐름은 기를 따라서 회전합니다. 양은 음을 따라 돌고, 음은 양을 따라 돌지요. 천지의 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기가 산을 움직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마가 그저 부슬부슬 오는 비가 계속 쉬지 않고 오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요즘 장마는 무섭습니다. 인력으로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장마를 하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인재입니다. 전부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뭉쳐있다 한순간에 되돌아온 것이지요. 지금 한번 밖을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산을 깎아내고, 길을 만들고, 빌딩을 세우고 있지 않아요. 하늘도 땅도 모두 예전과 다르게 변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들이 하늘로 올라가 대기권과 부딪쳐 태풍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무지로 만들어낸 소산이지요. 공업(共業)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수해의 원인제공자들이니 내일처럼 생각하고 거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님은 환경훼손이 없는 세계를 만들려면 자기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부터 깨끗한 마음을 갖고, 생활할 때 물도 맑고, 산도 맑아진다고 설하셨다.

글.사진=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리선행 법사의

스 님 이 야 기

홍도스님 (3)

'참회, 봉사 '를 기본 정신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실천하며 공동체생활을 하는 ' 잇토엔(一燈園) ' 이라는 부처님마을이 일본 교오토(京都)에 있다.

'잇토엔' 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과 연구소도 있다. '잇토엔' 은 매달 6~9일 3박4일간 정기적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 수련프로그램은 자아성찰프로그램으로, 수련을 받고나면 자부심을 갖게 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으로서 새로운 자각을 하게된다.

홍도스님은 1974년, 그곳에서 1년간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남겨놓은 깊은 인상 때문에 스님의 행적이 28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불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선승(禪僧)인 니시다 덴코(西田天香)가 설립한 생활불교의 현장에서 새로운 포교 방법을 배우고자 건너간 스님은 언어와 풍습이 다른 그곳에서도, 몸에 밴 부지런함과 규율 잘 지키는 습성, 그리고 특유의 친절로 오래지 않아 그곳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신망을 얻게 되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잇토엔



에서 생활하게 된 홍도스님은 화장실 청소, 법당 청소, 식사 당번 등 어떤 것이든 솔선해 이행했다.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띠고 대화를 했기에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더 인기가 높았다. 얼마나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지금도 그곳에 가면 '혼도스님 혼도스님(일본인들은 홍 자 발음이 잘 되지 않음)' 이라고 외치며 이곳 언덕은 혼도스님이 삽으로 평평하게 고른 곳이라든지, 저곳은 늘 잡초를 뽑던 곳이라는 등 스님과 연관해 회상을 하곤한다.

그곳에서 하심을 체득케 하는 수행방법중 하나로, 한달에 한번씩 외지에 있는 개인 집을 찾아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주는 것이 있다. 홍도스님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등에다 "잇토엔에서 나온 한국의 승려입니다. 댁의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써 붙이고 다니셨다. 그리고는 온몸이 땀으로 젖는 줄도 모르고 정성껏 청소를 하고, 다음 집을 찾아 나서곤 하였는데 얼마나 스님의 행동이 빨랐는지 집주인이 스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차를 끓여 수행자에게 드리는 보시금이 든 봉투를 들고 나오면 이미 스님은 다음 집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봉투를 그 집에 맡기면, 그 집에서는 두개의 봉투와 차를 준비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스님은 어느 틈에 그 다음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스님이 청소하러 나오는 날에는 온 동네에서 '혼도스님 찾기' 소동이 한바탕 벌어지곤 했다. 마지막 집에서 여러 개의 봉투를 들고 나와서 골목길 저편에서 잇토엔을 향해 걷고 있는, 물통과 걸레를 든 키가 작은 한국스님을 발견하게 되고 한사코 보시금 봉투 받기를 마다하는 스님에게 억지로 그 봉투들을 건네고 고마움에 가득한 인사를 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곤 했다.

보시금 봉투를 받은 스님은 먼저 그 돈으로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할 과자와 장난감을 샀다. 그리고 잇토엔으로 돌아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과자와 장난감을 나눠주며 온몸으로 대화했다. 친구처럼 즐겁게 놀아주곤 하였기에 그들의 머릿속엔 한국에서 온 혼도스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된 것이다.

잇토엔에서 1년동안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스님에게는 우리나라에 잇토엔과 같은 복지시설을 만드는 불사가 숙원사업이 되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적당한 부지를 찾아 헤매고 불자들에게

日 '잇토엔' 서 수행…깊은 인상 남겨

스님의 근면과 친절 지금도 '화제'

잇토엔의 정신을 알리고 잇토엔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몇 년을 무리하시더니 그리도 애타게 염원하던 잇토엔 건설을 이루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열반에 든 것이다.

홍도스님이 입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잇토엔 식구들 모두 어찌나 슬퍼했는지 스님의 49재엔 니시다 다케시 이사장이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직접 한국으로 조문을 왔다. 그리고 스님의 화장 유골 일부를 잇토엔으로 옮겨 가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납골당에 안치했는데 스님께서 주석하던 보현정사의 신도 5명을 함께 초청하여 의식을 집전하였다. 스님의 유골을 안치하던 그 날은 모든 업무를 쉬게 하고 잇토엔의 식구들이 한자리에서 추모하게 하였다. 그 현장에서 나는 그들이 진심으로 홍도스님을 그리워 하는 모습을 보았다. 따뜻함이 가득한 진정으로 대했고, 또 무엇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홍도스님을 일본인들은 진심으로 좋아했다. 스님이야말로 한일 친선 우호에 큰 획을 그은 진정한 민간 외교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나는 일본에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잇토엔에 있는 납골당에 들러 홍도스님 위패 앞에 분향하고 그곳에서 아직 스님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과 스님께서 남겨놓은 잇토엔에 새겨진 스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홍도스님을 추억하곤 한다.

횡성 '마음의 쉼터' 회주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여시아문"할인
- 불교전문쇼핑몰"마하몰"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 02-725-1132
대표) 02-737-8881